독일 하노버 시는 1990년대 초반 버스정류장을 예술 공간처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건축의 거장 가우디의 고향답게 거리 전체가 거대한 디자인 전시장 같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아름다운 경찰차 디자인으로 치안 불안을 줄였다. 이처럼 디자인 혁명으로 경쟁력을 높인 도시가 많다.

서울시도 부시장급이 본부장인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가동하고, 미적(美的) 차별성이 없는 성냥갑 아파트를 건축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디자인 혁명을 꿈꾸고 있다.